

총선 경쟁 '총성' 울렸다... 입지자 '얼굴 알리기 전쟁'

광주·전남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마감... 여론조사가 결정적 역할
중앙당 당직 요청·출판기념회... 현 의원들도 유권자와 만남 늘려

광주·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경선 비율 50%) 모집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입지자들이 당락에 결정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일반여론조사(50%)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해 일부 지역구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후보간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민의 선택'을 겨냥한 '얼굴 알리기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 중앙당에 당직을 요청하는 입지자들이 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서두르는 후보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 중 5명이 전남 중앙당으로부터 당대표 특보 등의 당직을 수여받았고, 중앙당의 각종 당직을 요청하는 인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

중앙당 당직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후보들이 직접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이력이 된다. 당직을 받은 이들 정치인들은 특히 '천이재평' 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평 당대표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또 9월 중순께 광주 동남갑과 광산갑에 각각 출마하는 2명의 입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서둘러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것은 앞서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일반여론조사가 당락을 좌우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한 자치단체장 민주당 당원 경선에서 1-2위간 1% 차이 나 박빙 승부가 예측됐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15% 차이가 나면서 안정적으로 공천된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모

집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구에서는 "후보들이 확보한 권리당원 숫자가 비슷해 사실상 일반여론조사에서 운콕이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지역구에서는 신규 입당을 원하는 유권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입후보자들이 발을 동동 구름 정도로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번 권리당원 모집을 통해 광주지역 8개 지역구당 5000~7000여 명의 신규 권리당원이 모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존 권리당원을 합치면 지역구당 1만2000~1만5000 여명이 총선 후보를 가르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지방선거에 비해 총선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내년 총선 권리당원 투표율이 50%일 경우, 각 지역구당 3000~4500명의 권리당원을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경쟁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들은 지역구를 돌며 담배공초를 쬐는 등 이름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비공식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며 경쟁 상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수성에 나서야 할 현역 국회의원들도 매주 지역구를 찾아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등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확보한 권리당원이 엇비슷한 경우가 많아 일반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선거구가 더욱 많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오는 9월 추석 무렵에 진행되는 언론사 총선 여론조사가 초반 여론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입후보자들도 서둘러 경선 경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너릿새 옛길 녹음 속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돈 17일 오후, 화순 너릿새 옛길을 찾은 시민들이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거닐며 폭염을 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파업 장기화 광주시립병원, 정상화 물꼬 트이나

광주시 노사협상 적극 지원
지역맞춤형 공공의료 재정립
병원 측, 교섭에 이사장 참여
노조 "언제든 대화 준비 됐다"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있는 광주시립병원 정상 운영 해법이 나오지 주목된다.

노사 합의만을 기다리며 방관했던 광주시가 뒤늦게 노사협상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데다, 병원 측이 교섭 과정에서의 이사장 참여를 약속,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며 대화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립병원 운영과 관련해 향후 지역 공공의료체계 재정립과 시립병원 공공성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1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사는 책임 있는

대표자가 대화에 나와 전제조건 없이 성실히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광주시도 노사협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의료법인이 경영을 책임지는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경영 등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노사 양측, 지방노동청이 참여하는 5자 협의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광주시는 향후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 공공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병원의 기능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광주연구원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객관적 기관에서 평가체계를 마련해 구체적 지원 기준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경영권을 보장해 시립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가 추진중인 공공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의료원 중심의 시립병원 통합은

영과 보건소 기능 전환 등 지역의료 수요 공급변화에 따른 지역맞춤형 공공의료 체계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수탁 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단 이사장이 교섭에 직접 나서겠다"며 "오늘 당장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은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위원장과 광주전남본부장도 교섭에 함께 해달라"며 "광주시, 의료재단(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지부) 3주체 간 회의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현 임금체제인 호봉제 유지, 재단 측은 연봉제 전환을 주장하면서 간극이 쉽게 좁혀질 지 미지수지만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 개시가 시급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이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지부는 "이사장이 드디어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며 "노조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주말 30~33도 무더위...도심은 열대야

주말이 시작되는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은 낮 최고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주말 나들이시 온열질환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티벳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등 덥고 습한 아열대고기압의 영향으로 20일까지

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겠다"고 17일 예보했다.

18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0~33도를 보이고 19일 아침최저기온 23~25도, 낮 최고기온 30~32도에 분포할 것으로 관측됐다. 도심지역과 해안 지역 일부지역 중심으로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경품 당첨? 개인정보 넘겼다가 '날벼락' ▶6면

복스 - '지리학자의 열대 인문여행' ▶14·15면

KIA-삼성전, 산체스·김선빈에 술린 눈 ▶18면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9(도상: 4,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04,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88.4
 -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도상: 3.9, 고속도로: 3.6) 1회 충전거리(km) : 401, 공차중량(kg) : 2510,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